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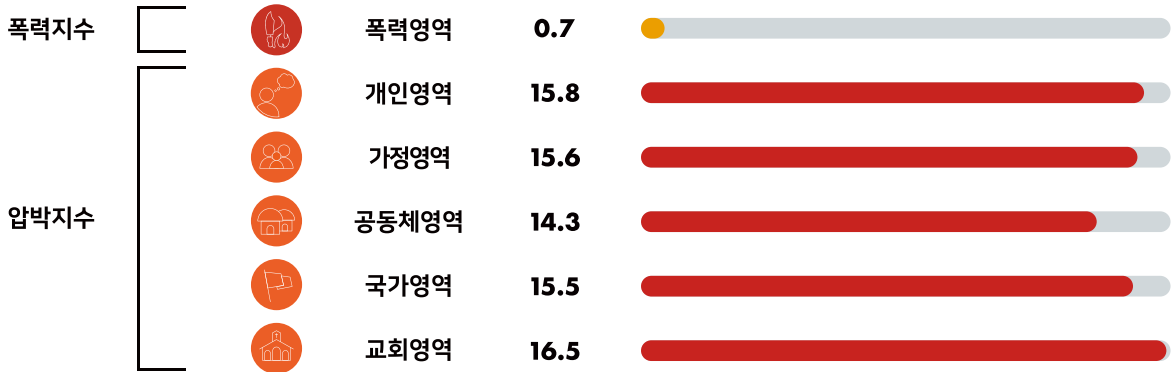
19 위

### 몰디브 (MALDIVES)



© Alamy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몰디브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말레섬에서 그러하다.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 사회는 종교적 이탈을 감시하는 자연스러운 감시자 역할을 한다. 몰디브 국민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법적으로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당국에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주민들 사이의 보수적인 이슬람적 태도 외에도, 이 나라는 시리아에서 돌아온 전투원들을 포함해 사회 일부의 급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지하드주의 모집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무장 범죄 조직들은 충분히 무슬림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몰디브에는 공식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주로 관광 부문에서 일하는 인도와 스리랑카 출신이며, 이들은 면밀히 감시받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 인터넷 검열은 신자들이 기독교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욱 고립시킨다.

# 몰디브 (MALDIVES)

##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  
인구 : 515,000명  
기독교인 수 : 수백 명(오픈도어 추정치)  
주요종교 : 수니파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 종교 상황 | 신자 수 (명)  | 비율 (%)      |
|-------|-----------|-------------|
| 기독교   | *         | -           |
| 무슬림   | 508,000   | 98.6        |
| 바하이교  | 3,700     | 0.7         |
| 기타    | 3,300     | 0.7         |
|       | <b>합계</b> | <b>100%</b> |

출처<sup>1</sup>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숫자는 기재 불가.

2023년 9월, 몰디브진보당의 모하메드 무이주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2024년 4월에는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인도 아웃” 캠페인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이후 무이주는 인도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그의 정부는 계속해서 국가의 100% 수니파 무슬림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쿠란 교육을 장려하는 것 외에도 2025년 4월 다수의 신규 모스크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한 쿠란 워크숍 건물 부지 배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Avas, 2025년 5월 3일).

2021년 이후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확대하여 비(非)이슬람 신앙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2021년 형법 개정은 “이슬람 비판”의 정의를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거주자, 개종자, 언론은 극단적인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미 국무부, IRFR 2023 Maldives).

대부분의 몰디브인은 온건한 이슬람적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자미야툴 살라프와 같은 살라피스트 단체들은 국가적 문제가 이슬람 정통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021년 5월 나시드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폭탄 공격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였으며, Transparency Maldives와 내무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는 교도소 내 급진화를 통해 형성되었다(2022년 8월). 그러나 극단주의 단체들은 주로 물리적 폭력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왔다.

몰디브에서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해 왔으며, 이는 2017년 블로거 야민 라시드 살해 사건(국제 앰네스티, 2017년 4월 23일)과 2019년 “Maldives Democracy Network” NGO 폐쇄에서 잘 드러난다. Human Rights Watch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정치인들과 이슬람주의 극단주의 단체들의 압력에 자주 굴복해 왔다고 지적했다(HRW, 2022년 4월 14일).

법적 체계는 사리아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에게 여전히 제한적이다.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sup>1</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동안 기독교 남성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에 직면한다. 몰디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남성들이 관광업과 해운업에 종사하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결과 많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박해는 국제 관광객 전용 섬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주로 인도, 스리랑카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면밀히 감시받으며, 결혼식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띄게 모이는 모든 모임도 감시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현지 몰디브인이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토착 개종자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예를 들어 대사관 등에서 조심스럽게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은 몰디브에서 해외 출신자들 사이에만 존재한다. (위 내용을 참조)

### 기독교 개종자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박해에 직면한다.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몰디브인 개종자들은 발각될 경우 시민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비밀리에 실천해야 한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은 몰디브에서 해외 출신자들 사이에만 존재한다. 위 내용을 참조하라.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주의적 억압

정부는 스스로를 이슬람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슬람부와 국방부는 배교자를 용납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Maldives Independent, 2018년 4월 15일). 이슬람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가족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비(非)이슬람 사상에 대해 막연한 관심만 보여도 해당 사람에게 심각한 압박을 가한다는 뜻이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이슬람주의적 억압은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과 얽혀 있는데, 이는 정당들이 스스로를 이슬람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로 내세우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비판”의 정의를 확대하는 2021년 형법 개정(미 국무부, IRFR 2023)은 해외 거주자, 개종자, 언론 사이에서 자기 검열을 심화시켰으며, 이들은 “반(反)이슬람적”, “비종교적” 또는 “서구의 대리인”으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한다. 이 법은 종교적 동질성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한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부패는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고질적으로 나타나며, 공무원들은 뇌물, 특혜, 협박에 의해 움직인다(The Diplomat, 2025년 1월 29일). 당국은 역사적으로 거리 갱단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위협하고, 재산을 훼손하며, 공격해 왔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지하드주의 단체들의 주요 모집 대상이며, 이는 조직범죄와 종교적 극단주의 사이에 위험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한 국가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했다. “무장 범죄 조직은 지하드주의 모집자들의 주요 대상이며, 급진화된 갱단은 충분히 무슬림답지 않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몰디브의 엄격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비밀리에 실천해야 한다. 발각될 경우, 가족과 국가가 이들을 이슬람으로 “되돌리려” 하기 때문에 강제결혼, 가정폭력, 이혼 또는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에 처한다. 여성들은 또한 이슬람 복장 규정을 따르라는 강한 압박을 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적 배척과 괴롭힘을 겪는다. 가정 내 젠더 기반 폭력이 종종 묵인되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신체적·성적 학대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이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자녀 양육권 박탈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 폭력 - 성적

### 남성

몰디브에서 남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비밀 신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발각될 경우, 당국이 이슬람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려 하기 때문에 괴롭힘, 위협, 폭행 또는 정부에 의한 투옥의 위험에 처한다.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감시와 체포에 대한 두려움은 늘 존재한다. 투옥된 남성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과 낙인을 경험한다. 많은 남성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기를 선택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이들 뿐이다. 남아 있는 이들에게는 비밀 유지와 압박이 일상을 규정한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
|------------|-----------------|---------------------|
| 2026       | 19              | 79                  |
| 2025       | 16              | 78                  |
| 2024       | 18              | 78                  |
| 2023       | 15              | 77                  |
| 2022       | 16              | 77                  |

WWL 2026에서 전체 점수는 0.8점 상승했다. 이는 주로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압박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지역 사회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매우 점진적인 상승 추세의 일부이다. 몰디브 헌법은 시민들이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회 건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 집권한 이후 무이주 대통령이 국가의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기독교인과 해외 출신 기독교인 모두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교육, 금융, 법률, 모스크 건설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국가는 수니파 이슬람을 지역 사회 생활에서 가시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 개인 영역

개종자들은 투옥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모든 기독교 자료를 감춘다. 디베히어로 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특히 위험한데, 당국이 이를 전도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非)이슬람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상징은 공무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즉시 제거된다. 해외 출신자들의 고용 계약서에는 비(非)이슬람 신앙을 표현할 경우 최대 5년의 투옥, 가택 연금, 5,000~20,000루피아(320~1,300달러)의 벌금,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가정 영역

세례와 기독교 장례식은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슬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36조(c)는 “교육은 이슬람에 대한 복종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기독교 개종자의 자녀들은 이슬람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요받는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참석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럼에도 이슬람은 학교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해외 출신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 지역사회 영역

높은 인구 밀도, 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이슬람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압박은 특히 수도 말레에서 극도로 높다. 한 예로 최근 검은 부르카 착용이 널리 확산된 것을 들 수 있다. 더 넓은 지역 사회에 의한 강제적 이슬람화의 또 다른 예는 개인의 신앙과 관계없이 라마단 기간 금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와 공개적 모욕으로 이어진다. 기독교인들은 괴롭힘, 경제적 기회 상실, 또는 극단적인 경우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순응하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다.

### 국가 영역

헌법은 이 나라를 ‘100% 무슬림’으로 지칭하며, 정부 규정은 이슬람법에 기초하고 있다. 한 조항은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택 연금에서 최대 5년의 투옥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추방된다.

### 교회 영역

법은 비(非)이슬람 종교 단체를 위한 예배 장소 설립을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비무슬림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개 집회를 열거나, 몰디브인을 그러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해외 출신자들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매우 제한된 양의 기독교 문헌만 허용되지만, 그 외에 기독교 자료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금 및 투옥된다.

또한 정부는 이슬람 외의 종교를 전파하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특히 개종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몰디브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몰디브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새로운 신앙이 발각될 경우, 기독교 개종자들은 샤리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며, 국가 혜택 상실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ICCPR 제18조 및 제26조)
-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비무슬림은 특히 몰디브인과 접촉하거나 몰디브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몰디브에는 교회가 없으며, 모든 비무슬림 의식은 금지되어 있다 (ICCPR 제18조 및 제21조)
-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의 사적인 예배 모임은 당국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 여성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및 CEDAW 제2조)

## 몰디브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몰디브는 어떠한 종교적 소수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은 법적으로 무슬림이어야 한다. 비(非)이슬람 신앙(힌두교, 불교,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기독교인과 동일한 박해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투옥보다 망명을 선택한다(Humanists International, 2020년 10월 8일).

심지어 “충분히 무슬림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위협에 직면한다. 미 국무부(IRFR 2023 Maldives)는 정부가 이슬람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들을 향한 온라인 살해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 오픈도어의 몰디브 사역

몰디브 지도자들은 자국 인구가 100%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들 중 누구라도 이슬람에서 개종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투옥 및/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오픈도어는 더 많은 몰디브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 지원이 확대될 것을 요청한다.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